

은행들 “적금 고객 잡아라”

금리 0.2~0.3%포인트 일제 인상 고객 유치 마케팅

주식시장 약세로 적립식 펀드 열풍이 주춤한 사이 금리가 상승한 데 힘입어 은행의 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은행들이 예금과 더불어 적금 금리를 0.2~0.3%포인트씩 올리고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주 들어 ‘가족사랑 자유적금’ 3년 만기 최고 금리를 연 6.15%로, 신한은행은 ‘희망 훑너지 적금’ 금리를 연 6.30%로, 농협은 ‘사랑앓 적금’ 금리를 연 6.75%로 각각 0.3%포인트씩 높였고 우리은행은 연 5.6%로 0.2%포인트 올렸다.

은행들은 금리 인상에 힘입어 적금 상품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

며 농협의 경우 휴가철이 끝나면 마케팅 행사를 실시해 3년 만기 상품의 경우 연 7% 이상까지 금리를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신한은행 김국환 차장은 “적금의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휴가철이 끝나고 나면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미 작년 말부터 적금으로 눈길을 돌려 잇따라 새 상품을 내놓은 뒤 짙짙한 재미를 보고 있다.

작년 11월에 등장해 적금 인기몰이를 주도한 국민은행 ‘가족사랑 자유적금’은 가입 계좌 수가 60만6천956좌, 납입 잔액은 1조4천655억원에 달하며 이에 앞서 작년 4월에 출시된 우리은행 ‘미스타일 자유적금’은 13만4천좌에 2천670억원이다.

신한은행 ‘희망 훑너지 적금’은 지난 달 중순 출시된 이래 가입 계좌 수가 9천500좌, 잔액이 68억원이 한 달 앞서 나온 ‘최경주 탱크적금’은 4만7천좌, 280억원으로 두 상품을 합하면 5만7천좌, 350억원에 육박한다.

4월초에 판매 개시한 기업은행 ‘서민섬김통장’은 3년 만기 금리가 연 6.1%로 상당히 높은 것을 내세워 4개월여만에 16만좌, 1천400억원을 끌어모았고 5월 8일 나온 농협 ‘사랑앓 적금’은 변동금리 방식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어 1만6천500좌, 150억원을 유치했다.

일주일 뒤에 출시된 하나은행 ‘와인처럼 적금’은 지난달 말까지 베이징 올림픽 축구 8강 기원 0.2%포인트 추가 금리 제공 행사 등에 힘입어 5만4천좌, 576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연합뉴스

광주, 전세금 1,700만원까지 우선 변제

보호 범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로 확대

경매 등으로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가도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변제금액이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광역시 3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

하로 확대했다.

우선 변제금의 액수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천6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천400만원에서 1천7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도 서울시의 경우 2억4천만원 이하에서 2억6천만원 이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천만원 이하에서 2억1천만원 이하로 각각 올렸다. /연합뉴스



꽃잎 모양 클러치백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은 12일 2층 빈치스 벤치 매장에서 공작의 깃털과 꽃잎을 연상시키는 클러치백과 펌프스백을 선보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택지개발 주차장 설치 기준 내년부터 자차단체가 결정

내년부터 택지,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지자체가 부설 주차장, 노의 주차장 등의 구조, 설비기준을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부지면적의 0.6% 이상을 노의 주차장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다.

국토부는 “각 건물의 부설 주차장이 충분히 설치되고 있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운용해 주민 민원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주공·토공 통합방안 내달 확정”

국토해양부 “통합 시기는 내년이 목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사의 통합방안이 9월말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통합시기는 내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국회 공기업 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방안을 9월 하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14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추진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방안을 만들고, 이달 말에는 공기업선진화추진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사의 통합방안 일정과 관련, “목표는 내년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공기업대책 특위에 출석, “주공·토공이 내년에 통합하는 게 맞느냐”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되면 다음에 (혁신도시로) 가야 되는 게 순서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대상 기업들은 민영화보다 통합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연합뉴스

美 텍사스 유전에 투자

국내 첫 실물펀드 출시

미국 생산유전에 투자하는 사모형 실물펀드가 국내에서 처음 출시된다.

투자자문사인 에너지홀딩스그룹은 동부화재를 비롯한 국내 보험사와 금융기관들이 투자하는 국내 최초의 사모 유전펀드의 기술운용 자문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펀드는 현재 원유를 생산 중인 텍사스 유전에 3천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 대상인 유전은 세계 19위의 유전회사인 엔카나(EnCana)가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유전평가회사인 GCA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기술 검토를 거쳤다.

운용사는 마이애셋자산운용이지만 유전관리를 비롯한 실질적인 업무는 에너지홀딩스그룹에서 맡게 된다. /연합뉴스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 ‘구멍’

상반기 관련민원 작년보다 16% 늘어

금융기관들의 허술한 개인 신용정보 관리로 고객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별첨한 고객이 신용정보업체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거나 힘들게 연체 채권을 갚았는데도 여전히 신용불량 기록이 남아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관련 처리민원은 1천5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9% 늘었다.

금융채무불이행 정보 부당등록 및 삭제 지연이 173건으로 24.5% 급증했고 채권 추심을 주업무로 하는 신용정보업자의 부당한 빚 독촉이 885건으로 14.3% 증가했다.

금감원은 연체 정보 등록 혹은 부실 채권 매매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잘못 전달되면서 신용정보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좋은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대구경북노동상담센터) (062) 227-9940

총장점 (금남공원앞) (062) 227-9970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동산 문변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발부모와 당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관내법률사무소 문변정사

010-9701-1111

ANYCHE CHAIR

기술과 명품을 바탕으로 한 탁월한 편안함 - 휴먼에어세

Anych

기술과 명품을 바탕으로 한 탁월한 편안함 - 휴먼에어세

Only the perfect sitting position brings health and energy to you.